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3, Vol. 12, 137-154

노인의 죽음개념 비교

오 현 숙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및 노인건강연구센터

(요약) 본고는 미국 및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및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을 각각 36명씩을 선정한 후 “죽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을 순서대로 3가지만 써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과 면접에 의해서 질적 자료를 얻었으며, 이들을 죽음에 대하여 연상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죽음의 개념은 14개의 소분류(건강, 질병, 끝, 편안함, 슬픔, 두려움, 아픔, 허무감, 연장, 정리, 이별, 사회, 내세, 자연) 및 4개의 중분류(신체, 심리, 사회, 종교)로 정리되었다.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연상한 죽음의 개념에 대한 단어의 분석은 죽음의 개념 구성이나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660-751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92번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또는 동교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 연구센터 오현숙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nhsoh@gaechuk.gsnu.ac.kr입니다.

오 현 숙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인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신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함과 동시에 죽음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노인, 소분류, 연상단어, 죽음개념, 중분류, 질적 연구]

서 론

최근 수 십 년 동안 생활수준의 향상과 현대의학의 발전은 급성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치료 불가능한 환자의 죽음까지도 연기해주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Kastenbaum, 1995). 그 결과 1980년대 3%에 달하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도에는 7.2%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10.7% 그리고 2020년에는 15.1%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 2001).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은 신체적 질병, 경제적 빈곤, 정서적 고통, 사회적 역할상실 등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 문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해야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기 전에 죽음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시대나 문화, 종교, 철학 등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돌아가다”나 “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등으로 표현해왔는데 (신정숙, 1986), 의학자들은 “생명의 정지, 즉 혈액순환의 전면적 정지, 호흡 및 맥박과 같은 동물적인 생존기능의 정지” 등 의사에 의하여 정의되는 삶의 끝남으로 정의하고 있다 (Beecher, 1968). 또 사전에는 “동·식물에서 모든 생체기능의 종결되는 것, 또는 죽는다는 사실이나 행동과정” (시사영어사, 1996), “인간이 생명체로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에 한 구성원이 되듯이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은 그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잃는 것” (Brueggeman, 1987) 등으로 나와있다.

죽음은 인간으로써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인간에게 자연적인 현상이며 인생은 죽음을 전제로 한 현상이다. 또 죽음은 인생의 어

노인의 죽음 개념

는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생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죽음을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노년기나 노인과 관련된다. 노인의 죽음에 관한 연구는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학이나 간호학 전공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유계주, 1974; Kastenbaum, 1995)를 비롯하여 주관성에 바탕을 둔 죽음에 대한 경험적 연구(김순자·고옥자, 김지아·이성림, 1992), 임종에 관한 연구 (Lynd, 2001), 죽음을 준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대동, 2002; 안황란, 1999), 죽음개념에 관한 문헌고찰(안황란, 1988)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개념을 죽음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의 의미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했으며 (Thorson & Powell, 1998), 다른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현상인 죽음에 관하여 전인적인 차원에서 보건의료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죽음의 단계를 제시했으나 (Dossey, Keegan, Guzzetta & Kolkmeier, 1995; Kubler-Ross, 1969), 죽음의 주관적이고 전인적인 기술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죽음 개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미국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한국노인들의 죽음개념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황당한 사건이며,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Kubler-Ross, 1969),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인간적이다. 또한 죽음은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았을 때 그 의미가 의식구조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한국노인들이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는데, 이는 죽음의 개념을 간호학적으로 이론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를 위한 죽음의 이론화 과정의 연구로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죽음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오 현 숙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미국 텍사스주 D시의 한국노인회 회원들 중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한국노인 36명 및 한국 J시의 한 노인대학의 수강생 중 참여를 원하는 노인 36명이었는데, 그들은 편의 추출방법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질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어도 분석이 가능하며, 죽음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상태의 숫자라고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결과 편 초두에 서술되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오현숙(1999)의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죽음!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써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과 함께 죽음의 개념에 대하여 연상되는 단어들을 유사한 의미나 가치를 가진 주제 및 유목별로 분류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죽음의 정의를 생각나는 대로 두 세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죽음을 느낄 때 어떻게 하여 삶을 구합니까?”, “당신이 현재 죽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등 일곱 가지의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

면접내용은 연구자, 간호학 교수 1인, 그리고 인문학자 1인이 함께 같은 의미와 가치를 가진 주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연상개념, 유목, 범주별로 토의하면서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범주의 수를 줄여나갔다. 세 사람의 평가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분류를 하는 사람들간의 일치도(intracoder consensus)를 얻기 위

노인의 죽음 개념

하여, 여러 번의 재조정 작업을 통하여 유목별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를 나중에 다른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조정하였다.

유목별로 정리된 하위개념들은 동일한 유목에 모여진 연상개념들이 주는 의미나 가치에 맞도록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이 경우 가능한 죽임과 관련된 문헌상에서 나타난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또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은 하위개념들에 관한 유목의 명칭부여는 사전에 참조하였다. 인문학자는 명칭이 부여된 유목들이 각각의 하위개념들이 의미하는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연상된 개념들의 의미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통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으며, 명명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좀 더 확실하게 하위개념들의 의미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다시 명칭을 부여했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는데, 양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 연령의 경우 한국거주 노인들은 평균 69.6세(범위: 60-82세)인 반면, 미국거주 노인들은 71.3세(범위: 60-87세)이었다. 즉 두 집단 모두 60대의 비율이 과반수이었지만, 80대 이상의 비율은 미국거주 노인들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양 집단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유사했지만, 미국거주 한국노인의 일부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었다. 종교는 미국거주 노인에서 기독교가 거의 4을 차지한 반면, 한국거주 노인에서는 불교가 절반에 해당되었다. 배우자는 미국거주 노인에서 유무의 비율이 각각 반반이었지만, 한국거주 노인들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미만이었다. 노인가구의 형태는 미국거주 노인의 경우 노인 단독으로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한국거주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국거주 노인들(47.2%)보다

오 현 숙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특성	구분	미국거주 노인	한국거주 노인
성별	남	17 (47.2)	15 (41.7)
	여	19 (52.8)	21 (58.3)
연령	60대	19 (52.8)	20 (55.3)
	70대	11 (30.6)	14 (39.1)
	80대 이상	6 (16.6)	2 (5.6)
교육정도	무학	1 (2.8)	0 (0.0)
	국문해독	2 (5.6)	0 (0.0)
	초등학교 졸업	7 (19.4)	8 (22.2)
	중학교 졸업	6 (16.6)	8 (22.2)
	고등학교 졸업	9 (25.0)	12 (33.4)
	대학 졸업이상	11 (30.6)	8 (22.2)
종교	기독교	27 (75.0)	8 (22.2)
	불교	6 (16.6)	18 (50.0)
	천주교	3 (8.4)	5 (13.9)
	유교	0 (0.0)	3 (8.3)
	없음	0 (0.0)	2 (5.6)
배우자	유	18 (50.0)	28 (77.8)
	무	18 (50.0)	8 (22.2)
수입	유	17 (47.2)	22 (61.4)
	무	19 (52.8)	14 (38.9)
노인가구 형태	노인단독가구	15 (41.7)	4 (11.1)
	노인부부가구	9 (25.0)	21 (58.3)
	자녀동거가구	12 (33.3)	9 (25.0)
	기타	0 (0.0)	2 (5.6)
평소기분 상태	기분이 좋다	19 (52.8)	19 (52.8)
	그저 그렇다	16 (44.4)	15 (41.7)
	불안/외기소침/우울하다	1 (2.8)	2 (5.6)
	아주 절망적이다	0 (0.0)	0 (0.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0 (27.8)	2 (5.6)
	건강하다	13 (36.1)	13 (36.1)
	보통이다	8 (22.2)	16 (44.4)
	건강하지 않다	5 (13.9)	5 (13.9)
	매우 건강하지 않다	0 (0.0)	0 (0.0)
만성질환 상태	없다	17 (47.2)	16 (44.4)
	있어도 일상생활 지장 없음	15 (41.7)	18 (50.0)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4 (11.1)	2 (5.6)
미국 거주기간	1년 미만	2 (5.6)	-
	1년 - 10년	6 (16.6)	-
	10년 - 20년	8 (22.2)	-
	20년 - 30년	13 (36.1)	-
	30년 - 40년	4 (11.2)	-
	40년 이상	3 (8.3)	-

노인의 죽음 개념

도 한국거주 노인들(61.4%)이 약간 더 높았으며, 평소 기분상태는 두 집단 모두 ‘기분이 좋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반응에서는 두 집단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반응비율이 낮았지만, 건강하다는 비율은 한국거주 노인보다 미국거주 노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없다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40%를 넘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비율은 미국거주 노인이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 또 미국거주 한국노인들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21년 정도(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46년)이었으며, 20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반응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상단어들의 소·중분류 및 총괄적 연상개념 유형 분석

죽음 개념에 대한 분류와 총괄적 연상개념은 인간의 모습을 자연의 한 요소로서의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개체로서의 인간으로 보고서 분석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미국 거주 노인 36명으로부터 98개념 그리고 한국 거주 노인 36명으로부터 72개념, 모두 170개의 연상개념들을 제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연상개념들을 소분류 및 중분류처럼 명명한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분류는 신체, 심리, 사회, 및 종교의 네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즉 죽음을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정지라는 측면에서만 받아들이는 경우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신체를 범주화하였고,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느껴지는 모든 마음 상태에서 심리를 범주화하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2003)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동물과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본다는 뜻이다. 인간은 죽음을 동물적 죽음으로서의 신체 소멸이라기보다 때로는 사회적 삶의 단절로 이해하므로 사회를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사건은 인간적 삶의 종말을 의미하므로 신적인 세계나 내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종교를 범주화하였다. 종교의 범주에는 운명이 라거나,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경우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자연의

오 현 속

모든 현상을 신적이라고 해석하는, 다시 말해 “신 = 자연”이라는 도식을 보여준 스피노자(2001)에 근거하였다.

소분류는 모두 14가지로 정리되지만, 이들은 네 개의 중분류 내에 두 개에서 다섯 개의 내용으로 구별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분류: 신체

① 건강: 건강관리, 삶의 연장으로부터 죽음을 갖게 된다는 경우를 “건강”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생물학적인 삶을 신체적 건강과 연관시켜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유형의 연상단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부에서만 나타났다 (2.8%, 2/72).

② 질병: 질병, 삶의 포기, 연상단어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는 생물학적인 삶을 질병과 연관시켜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유형의 연상단어들도 한국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들에서만 나타났다 (2.8%, 2/72).

③ 끝: 숨이 끊긴다, 호흡이 없다, 생명의 적, 생의 마감, 끝 등과 같은 연상단어군으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들 단어들은 신체적 생기의 멈춤으로 신체적인 마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끝”으로 명명하였다. 연상개념 총수의 약 6.5%(11/170)가 이 개념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 모두 제시한 연상단어들이었다 (미국 집단, 6.1%, 6/98; 한국 집단, 6.9%, 5/72).

(2) 중분류: 심리

① 편안함: 기쁨, 편히 쉰다, 평안, 안식 등과 같은 연상단어군으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인생은 복잡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됨으로써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되어 “편안함”이라고 명명하였다. 미국 거주 노인들에서만 이러한 개념유형의 연상단어들이 제시되었다 (11.2%, 11/98).

② 슬픔: 슬프다, 슬픔의 연상단어군으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노인의 죽음 개념

이는 심리적으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어 “슬픔”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연상 단어들도 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들에서만 제시되었다 (4.1%, 4/98).

<표 2> 죽음의 개념체계

중분류	소분류	연상개념 (미국거주노인)	n (%)	연상개념 (한국거주노인)	n (%)	N (%)
신체	건강			건강관리 (1) 삶의 연장 (1)	2 (2.8)	2 (1.2)
	질병			질병 (1) 삶의 포기 (1)	2 (2.8)	2(1.2)
	끝	숨이 끊김 (1) 호흡이 없음 (1) 흠이 참 (1) 몸이 강직 (1) 생체기관 정지 (1) 생명의 적 (1)	6 (6.1)	생의 마감 (3) 끝 (2)	5 (6.9)	11 (6.5)
심리	편안함	담담함 (1) 기쁨 (1) 편히 됨 (1) 편안함 (4) 평안 (1) 안식 (1) 걱정을 잃어버림 (1) 번뇌로부터의 마감 (1) 자유 (1)	11 (11.2)			11 (6.5)
	슬픔	슬픔 (4)	4 (4.1)			4 (2.4)
	두려움	두려움 (1) 무서움 (1)	2 (2.0)	공포 (3) 두려움 (2)	5 (6.9)	7 (4.1)
	아픔	고통 (2) 아픔 (1)	3 (3.1)	아픔 (1)	1 (1.4)	4 (2.4)
	허무감	허무 (3) 인생 허무 (1) 공허함 (1)	5 (5.1)	삶의 허무 (5) 인생의 허무 (1) 인생무상 (1) 무상 (1) 무의미 (1)	9 (12.5)	14 (8.2)

- <표 2> 다음 쪽으로 계속됨 -

오 현 속

- 앞쪽으로부터 <표 2> 연결됨 -

사회	연장	부인·자녀 생각 (1) 부인 (1) 아빠 (1)	3 (3.1)	자식 (5) 부모공경 (1) 가족 (3) 가정의 화목 (1) 화목 (1)	11 (15.3)	14 (8.2)
	정리	주변 정리 (2)	2 (2.0)	인생의 정리 (1) 후회 없는 삶 (1) 정리 (2) 주변 정리 (1)	5 (6.9)	7 (4.1)
	이별	생애의 이별 (1) 가족과의 이별 (2) 이 세상과 작별 (1) 인생의 종말 (5) 끝남 (2) 종말 (1) 모든 생활의 끝 (1)	13 (13.3)	세상이 끝남 (1) 이 세상을 떠나는 것 (1) 인생의 종말 (3) 모든 생활의 끝 (1) 종말 (2)	8 (11.2)	21 (12.4)
	사회			돈 (1) 장례식 (1)	2 (2.8)	2 (1.2)

- <표 2> 다음 쪽으로 계속됨 -

③ 두려움: 두려움, 공포, 무섭다 등의 연상단어들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두 집단 모두 이러한 개념 유형의 연상단어들을 제시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집단, 2.0%, 2/98; 한국집단, 6.9%, 5/72).

④ 아픔: 고통, 아픔 등의 연상단어들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는 인터뷰 결과 죽음이라는 사실이 심리적인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지 죽을 때 어떤 신체적 고통이 아니므로 심리에서 “아픔”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 유형의 연상단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도 제시했지만,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미국집단, 3.1%, 3/98; 한국집단, 1.4%, 1/72).

⑤ 허무감: 허무, 공허, 인생무상, 무의미 등과 같은 연상단어들로 이들은 모두 허무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이러한 개념유형의 연상단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많이 제시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노

노인의 죽음 개념

- 앞쪽으로부터 <표 2> 연결됨 -

종교	내세	준비 (1) 지옥 (1) 구원 (1) 죽은 사람과의 상봉 (1) 엄마와 만남 (1) 평화롭게 잠이 듦 (1) 잠자는 것 (1) 누구나 가는 것 (1) 가야할 길 (1) 이 세상을 떠남 (1) 공수래공수거 (1) 다른 세계 (1) 다시 태어나는 것 (1) 잠에서 깨어나는 것 (1) 천당에 가는 것 (2) 천국 (7) 전당 (4) 하늘나라 (1) 하나님 곁으로 감 (2) 예수님께 가는 것 (1) 부활 (1) 영혼의 불멸 (1) 영혼 (1) 구혼 (1) 영원 (1) 영생 (5) 영원한 나라로 감 (1) 영원을 생각 (1)	43 (43.9)	영혼의 세계 (1) 영혼의 세계로 감 (1) 영에서 영으로 감 (1) 영생 (1) 영계 (1) 내세 (3) 조용히 가는 것 (2) 극락 (1) 율회 (1) 천국 (1)	13 (18.0)	56 (32.8)
	자연	흠으로 돌아감 (1) 본래로 돌아감 (1) 운명에 순응 (1) 운명 (1) 정한 이치 (1) 필연적인 것 (1)	6 (6.1)	자연으로 돌아감 (1) 당연한 일 (1) 당연지사 (1) 운명 (1) 자연의 섭리 (3) 자연의 순리 (1) 원칙 (1)	9 (12.5)	15 (8.8)
	총계		98 (100)		72 (100)	170(100)

인들이 더 많이 제시하였다 (미국집단, 5.1%, 5/98; 한국집단, 12.5%, 9/72).

(3) 중분류: 사회

오 현 숙

① 연장: 부인, 자식, 가족, 화목 등과 같은 연상 단어들로 이들은 가족이 나의 삶의 일부라고 판단되어 “연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 유형의 연상단어들은 미국보다도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제시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미국집단, 3.1%, 3/98; 한국집단, 15.3%, 11/72).

② 정리: 주변정리, 인생의 정리 등의 연상 단어들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러한 개념 유형의 연상 단어들도 미국보다도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더 높게 제시하였다 (미국집단, 2.0%, 2/98; 한국집단, 6.9%, 5/72).

③ 이별: 생애의 이별, 인생의 종말, 끝남, 종말, 모든 생활의 끝 등의 연상 단어군으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들은 면접 결과 죽음으로 인하여 끝이나 종말이 온다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유형의 연상단어들은 두 집단 모두 다른 소분류 개념들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한국보다도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국집단 13.3%, 13/98; 한국집단, 11.2%, 8/72).

④ 사회: 돈, 장례식과 같은 연상단어들은 사회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에서만 제시되고 있었다 (2.8%, 2/72).

(4) 중분류: 종교

① 내세: 준비, 지옥, 구원, 다른 세계, 천국, 천당, 영혼의 세계 등과 같은 연상 단어군으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들은 기독교, 불교에서 내세와 관련된 용어이고 죽은 후에도 사후생활이나 개인적 생명이 계속되어 다음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어 “내세”라 명명하였다. 이 개념 유형과 관련된 연상단어를 제시한 비율은 소분류 개념들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한국보다도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월등히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집단, 43.9%, 43/98; 한국집단, 18.0%, 13/72).

② 자연: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운명에 대한 순응, 운명, 정한 이치,

노인의 죽음 개념

자연으로 돌아갈 운명 등의 연상 단어군으로 구성된 개념 유형이다. 이들은 운명을 믿고 질서를 따른다, 즉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스피노자(2001)의 명제에 근거를 두고 “자연”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개념 유형과 관련된 연상단어를 제시한 비율은 미국보다도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집단, 6.1%, 6/98; 한국집단, 12.5%, 9/72).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간에서 차이를 보인 연상개념들은 여러 가지이다. 즉 “편안함”이나 “슬픔”의 개념은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에서만 보였던 반면, “질병”이나 “건강”, “사회”의 개념은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에서만 나타났다. 또 두 집단 모두 제시된 개념이지만, “아픔”이나 “이별”, “내세”는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던 반면, “공포”나 “허무감”, “연장”, “정리”, “자연”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누구나 죽음에 관한 개념을 연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의하지만, 한국노인들의 죽음에 관한 표현 내용은 어느 문화권에서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노인들이 이해하는 죽음의 개념을 비교한 것이었다. 공평한 비교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선정도 연령이나 성별 등에서 차이가 없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두 집단의 교육수준도 비슷하였으며, 또 평소의 기분상태도 두 집단 모두 과반수가 기분이 좋다고 반응했듯이 차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 때문에 종교 또는 다른 개인적인 특성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조정하기 어려웠다.

질적인 연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언급한 죽음의 개념들은 4개의 중분류와 14개의 소분류로 정리되었는데, 중분류 범주에 분류된

오 현 속

연상개념의 수는 “신체” 범주에서 15개(8.9%), “심리” 범주에서 40개(23.6%), “사회” 범주에서 44개(25.9%), 그리고 “종교” 범주에서 71개(41.6%)로 모두 170개였다. 14개의 소분류 중에서 일부는 두 집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중분류 신체에 속하는 “끝”이라는 소분류이었다. 즉 한국이나 미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간에 끝이라고 표현한 비율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이는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두 문화권에서 변화가 없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지만 대다수 소분류들은 두 집단의 차이를 보였는데, 왜 그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그것들은 ① 두 집단 사이의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 ②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보이는 문화 변용(acculturation), 그리고 ③ 앞의 두 가지와 관련되면서도 영향을 다르게 미칠 수 있는 종교적 배경이다.

먼저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죽음의 개념을 약간 다르게 이해했다는 볼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이별”이라는 하위개념에 대한 반응비율은 한국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과 관련이 클 수도 있다. 노인가구의 형태를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단독가구가 가장 높았던 반면, 한국거주 노인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없이 홀로 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다는 뜻은 배우자와의 사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이별이라는 개념 비율의 차이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이나 만성질환 상태가 약간 달랐는데, 이러한 차이가 건강하고 관련된 하위개념에서의 차이를 반영했는지도 모른다. 즉, 미국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낮았는데, 그러한 연유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하위개념의 반응비율은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만 나타났다. 반면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비율도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월등히 높았는데, 그러한 차이가 “아픔”이라는 하위개념에서의 반응비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노인의 죽음 개념

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문화 변용에 의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노인들이 죽음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노인들은 그곳에서 거주한 기간이 평균 46년 정도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평균연령(71.3세)을 고려할 때 20대나 30대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또 그동안 문화 변용의 과정에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각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희망적, 좋은, 깨끗한, 자비로운 반면, 한국인들은 절망적, 나쁜, 어려운, 어두운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김인자, 1984). 그러다 보니 돈이나 장례식과 같은 개념의 소분류 “사회”의 내용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만 나타났으며, “자연”의 하위개념의 경우 미국보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 비율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화권에서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고향을 떠난 자가 자기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고 본 견해(최준식, 2001)와 일맥상통한다.

또 “슬픔”의 하위개념은 미국거주노인에게만 나타난 개념으로 철저한 개인주의와 사생활보호라는 미국사회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 반면에 “두려움”이나 “허무감”, “연장” “정리”의 하위개념은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문화권에서 죽음을 자신이 속한 환경과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죽음을 이해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미국의 종교가 생활화된 기독교이고 교회, 즉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인이 모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편안함”의 하위개념은 미국거주노인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기독교적인 죽음관인 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에서는 불교가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생로병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불교적 세계관 때문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대동 (2002).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 · 고옥자 · 김지아 · 이성림 (1992). 죽음연구의 주개념 및 연구 방법분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논문집**, 29, 493-507.
- 김인자 (1984). **죽음의식에 관한 비교문화권적 조사연구: 한국과 미국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스피노자 (2001). **에티카**. 서울: 서광사.
- 시사영어사 (1996). **영한대사전**. 서울: 시사영어사.
- 신정숙 (1986).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서울: 대광문화사.
- 아리스토텔레스 (2003). **정치학**. 서울: 박영사.
- 안황란 (1988). 인격발달단계별 죽음개념에 대한 한국과 서양문화권의 비교. **경상대학교논문집**, 27, 275-295.
- 안황란 (1999).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8, 44-68.
- 오현숙 (1999). 불확실성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 (4), 831-844.
- 유계주 (1974). 죽음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임종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대한간호학회지**, 4, 162-174.
- 최준식 (2001).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Beecher, H. K. (1968). A definition of irreversible coma.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5, 337-340.
- Brueggeman, W. (1987). 사망, 죽음의 신학. **기독교대백과사전** 제8권, 서울: 기독교문사.
- Dossey, B. M., Keegan, L., Guzzetta, C. G., & Kolkmeier, L. G. (1995). **Holistic Nursing**. Maryland: Aspen Publishers.
- Kastenbaum, R. (1995).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5th ed.). Boston: Allyn & Bacon.

- Ku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Lynd, M. H.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dying home for elderly male hospice patients**. Doctorial Dissertation of the Texas Woman's University in Denton, Texas.
- Thorson, J. A., & Powell, F. C. (199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691-701.

Comparison of Concept of Death in Older Adults

Hyun-Sook Oh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660-751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ompare death concepts between the elderly Koreans who resided in Korea and those in USA. They were asked to list about three words or sentences while they think of death.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classified 4 main categories and 14 minor categories. There found some differences in the death concepts between two groups, and they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cculturation, and religious backgrounds.

(논문접수일: 2003년 10월 15일)
(수정논문접수일: 2003년 11월 12일)
(논문게재승인일: 2003년 11월 19일)